

종합

이희호여사 여수·순천 방문
복지시설·순천만 둘러볼 듯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6일과 7일 여수와 순천을 방문한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5일 "이 여사가 6일 1박2일 일정으로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 교회와 복지시설, 순천만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은 "이 여사의 여수·순천 방문은 여수 성광교회 측이 이 여사에게 간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김대통령 집권시기 청와대 정부수석직을 지냈던 순천출신 조순웅 지사와 DMB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순천만에서 이 여사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그는 평소 고향에 대한 애정을 김 전 대통령 내외에게 소개했으며, 이 여사도 김 전 대통령 생전에 순천만 방문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의 여수·순천 방문에는 조 전 수석 외에도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부부, 윤철구 김대중 평화센터 사무총장, 박한수 국장 등이 수반할 계획이다. /최경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o@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시·도민 후보 가시화

오는 6월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가칭 시·도민 후보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시민주부추대위원회는 "오는 9일 광주 YMCA무진관에서 추대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장황국 시 교육위원을 추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가칭 시민주부추대위원과 이민주인 광주대교수가 신청했으나 최근 이 교수가 철퇴, 경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교육감 추대위도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후보군에서 자체 검증을 거쳐 3~4명으로 압축, 본인 동의를 거쳐 10일 발표하기로 했다.

1차 검증은 후보자 이력을 중심으로 추대위 제시 요건에 맞는지, 중요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따지기로 했다. 2차 검증은 병역과 재산, 전과, 약력, 가족관계 등을 살피고 정책질서 등을 바탕으로 이념과 교육철학 등을 검증한 후 이달말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칭 시·도민 후보 추대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적지 않는데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미흡, 특정후보 밀어주기, 대표성 논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울 G20 정상회의
11월11일~12일 열려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손지에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준비위는 금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11월 11~12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G20 회원국들에게 미리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정상회의 장소는 삼성동 코엑스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 2022 월드컵 개최 도시 신청

"U대회 계기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 최대 강점"
서울·부산 등 14곳 경합... 유치위 내달 초 확정

한국이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전에 뛰어들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의 개최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5일 광주시와 2022 월드컵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개최 도시 신청을 받은 결과 광주시를 포함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제주, 천안, 청주, 포항, 고양 등 14개 도시가 신청했다.

광주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 월드컵 경기장을 업그레이드해 활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마무리되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안은 공설운동장을 증설하며 고양은 실업 축구 국민은행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고양 종합운동장을 개축하기로 했다. 또 포항과 청주는 경기장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냈다.

서울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외에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추가로 신청했고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여는 인천은 기존 문학경기장 외에 신축되는 주경기장을 월드컵 개최시 활용하기로 했다.

유치위원회는 조만간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도시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국내 개최 도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을 개최하

려면 8만석 이상의 관중석을 보유한 개, 폐막식용 주경기장 1개와 준결승이 치러질 6만석 이상의 경기장 1개, 32개 본선 진출국이 조별리그를 벌일 4만석 이상의 경기장 11개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카타르와 함께 2022년 대회에만 유치 신청서를 냈다.

FIFA는 12월2일 취리히 FIFA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위원 24명의 비밀투표로 2018년 개최지와 2022년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한다.

유치위 관계자는 "5월14일까지 정부 보증서를 첨부한 월드컵 유치 신청서를 FIFA에 내야 하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국내 개최 도시를 결정해야 한다. 경기장이 FIFA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물론 개최 신청 도시의 교통과 숙박여건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청소년상담센터 개원 20주년 기념식
광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개원 20주년 기념식이 5일 광주 YMCA무진관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럽發 쇼크... 금융시장 요동

주가 49포인트↓·환율 19원↑... 亞證시 연쇄 급락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재정적자로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글로벌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며 두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렸다. 원·달러 환율은 1.17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9.30포인트(3.05%) 내린 1,567.12에 거래를 마감하며 '두바이 사태' 직후인 지난해 11월 30일의 1,555.60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이 3천억원가량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장 초반 강한 매도에 나서며 투매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순매수로 돌아선 데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순매수하며 추가하락을 제한했다. 코스닥지수도 18.86포인트(3.65%) 내린 497.37에 마감하며 5거래일 만에 500선을 내렸다.

아시아권 증시도 연쇄적으로 급락했다. 전날 유럽증시에 이어 미국 다우지수가 2%대 내림세를 이어갔고, 이날 아시아권에서 일본 니케이지수가 2.89%, 대만 가권지수가 4.3%,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87% 내리면서 충격에 고스란히 받아냈다.

유로화 약세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데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환율은 치솟았다.

이날 환율은 19.0원 오른 1,169.9원에 마감하며 전고점(1,169.50원, 2월1일)을 경신했다. 작년 12월 29일의 1,171.20원 이후 최고치다. /연합뉴스



시설

장바구니 물가 급등, 민생 안정대책 세워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가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추값이 104%나 상승했고 명태(50.4%), 파(49.1%), 상추(30.2%) 등 농수산물 가격이 생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한파때다 유가 상승과 같은 불가피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올라도 너무 올랐다. 물가상승세가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줄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장바구니 물가 급등은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해당 업체들이 원가

부담이 크다며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 시점은 6월 지자체장 선거가 끝난 직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심지어 기본급을 늘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겨울철 전력소비에 급증하자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 사실상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물가대책이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일회성 물가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낙후된 유통구조로 중간 상인만 배 불리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생안정의 첫 걸음이다.

감동 전한 담양군의 '얼굴 없는 천사'

이를 전 담양군에 또다시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 지난해 익명의 기부자가 거액을 낸 이후 두번째다. 이 기부자는 4일 오전 중학생 김모(15)을 통해 군청 행정과 사무실에 현금 200만원과 2장의 메모지가 들어있는 박카스 상자를 전달했다.

첫 메모지에는 "들불, 첫 불을 밝혀야 할 등불이 심지가 짧아 더 밝은 쌍둥이의 기부가 되기를. 2010년 2월4일 의사모 군민"이라고 쓰여 있었고, 두번째 메모지에는 "감사합니다. 담양장학회 등 불장학금의 첫 단추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해 7월에도 현금 2억원이 담겨있는 사과상자를 전달했으며 군은 등불장학회를 설립해 그동안의 이자 수익금으로 올 3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담양군은 이 기부자가 등불장학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으로 미뤄 지난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해 익명의 기부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박한 세태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기부나 봉사활동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이라면 더욱 그렇다. '얼굴 없는 천사'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서는 것은 기부의 참뜻에 있다. 우리는 가수 김강흔씨와 배우 문근영씨를 '기부의 천사'라고 부른다. 얼굴을 내밀기 위한 기부나 사회봉사활동이 아니라 진정성이 묻어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문화는 이제 보편화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선진국에선 '부와 명예=기부'가 공식화돼 있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자선금은 자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담양군은 이 기부자가 등불장학금에 대해 잘

"中·인도가 올 한국경제 기회 요인"

조환익 코트라 사장 광주 '세계시장 설명회'서 밝혀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거대 신흥시장이 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환익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트라 세계시장 설명회 및 진출방안 상담회'에서 "2010년 세계시장의 기회와 위협"이라는 강연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중국 정부의 내수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라 새로운 소비시장이 열리고 증서부 내륙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기회와 자본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인구 11억명의 인도도 빠른 경기회복과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수입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조 사장은 소니와 샤프의 LED 시장 공동 대응 등 세계 경쟁기업들의 합종연횡을 통한 도전,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거센 추격, 작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역할을 했던 환율효과가 사라진 점, 통상 마찰과 보호주의 확산 우려 등을 위협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코트라의 사업계획과 세계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별 상담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北, 로버트 박 석방 결정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한이 지난해 12월 25일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박씨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풀이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씨를 석방한다는 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것은 그가 북한에 들어가 억류된지 42일만이다. 지난해 3월 북·중 접경지대에서 취재하다 북한 경비병에 붙잡힌 미국 커린트 TV 소속 로라 링(Laura Ling), 유나 리(Euna Lee) 두 여가지는 억류 140일만에 석방됐다.

중앙통신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심심하게 뉘우친 점을 고려해 해당 기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浩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96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재무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올해 '세종시 추위'라게 생겼나?!

광양 컨부두 올 목표 물동량 200만TEU

사상최대... 1월 48%↑ 17만TEU

특히 올해 1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48.2%가 증가한 17만TEU의 실적을 올려 올해 성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컨부두공단 측은 "2008~2009년 세계 10대 항만의 물동량이 평균 10.2%가 감소했지만 광양항은 0.03% 감소에 그쳤다"며 "올해 글로벌 선사인 차이나십핑 등이 새로 취항하고 기존 선사들도 물량을 늘릴 계획인데다 특히 광주지역 전자산업 물량 등이 증가해 올해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컨부두공단은 5일 '2009 전반기 광양항 최우수 터미널 운영사'로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과 한국국제터미널 등 2개사를 선정했다. /동부취재본부=박정욱기자 jwpark@